

태권도의 세계화... 해외취업 길 열려

전주대 - 미주태권도교육재단 해외취업 상호협력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는 지난 4일 대학본관에서 미주태권도교육재단과 '태권도학과 현실실습 및 해외취업'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호인 총장과 문화융합대학장 이상행 교수, 경기지도학과 최광근 교수, 이숙경 교수, 미주태권도교육재단 김경원 이사장과 박노근 이사, 이종원 이사, 김정훈 사무총장, 나부터 개혁 실천 세계연합(이하 나실련) 김중선 회장 등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현장실습 교육 기회 부여 및 취업정보 공유 △학생취업을 위한 해외취업 양성 프로그램 공유를 주요 골자로 하며, 이에 따라 태권도학과 학생에게 미국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지에 해외취업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호인 총장은 "전주대도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연과 시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미주태권도교육재단과의 인연을 통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과 인



좌측부터 대외협력홍보실 이명숙 실장, 태권도학과 이숙경 교수, 태권도학과 최광근 교수, 문화융합대학장 이상행 교수, 이호인 총장, 미주태권도교육재단 김경원 이사장, 나실련 김중선 회장, 미주태권도교육재단 박노근 이사, 이종원 이사, 김정훈 사무총장.

력을 공유하고 서로 상생하며 태권도를 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주태권도교육재단 김경원 이사장은 "2001년부터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이미 미국에서 많은 학교들이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태권도를 무술경기에서 교육으로 승화시키면서 전주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처럼 전문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김경원 이사장은 태권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했다. 김경원 이사장은 미국 태권도 공교육화의 시행착오와 역경,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며, 전주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했다.

한편, 미주태권도교육재단 김경원 이사장은 전북 부안출신의 재미 태권도인으로 2006년 미주태권도교육재단을 설립하고, 2007년부터 계속해서 '뉴욕 타임스퀘어 태권도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등 한민족의 우수성과 태권도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교육지원청, 통학차량 관련자 안전교육 실시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숙)은 5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및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 운전자, 안전지도사 73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통학차량 관련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지원청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소속 강사를 초빙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관리 교육을 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후남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 우석고등학교가 2019 용인대총장기 전국 남녀 중·고 유도대회 남고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학습공동체로 성장하는 참학력 학교 역량 강화

내일 학교·지원단 합동워크숍

참학력 학교·참학력 지원단 합동워크숍이 내일 오후 전주 오펜스 5층에서 열린다.

워크숍에는 초·중·고 참학력 지원단, 참학력 학교 담당교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340여명이 참석, 올해 참학력 학교 운영 방안과 참학력 지원단 활동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1부에서는 성공회대 고병현 교수를 초대해 '미래학력과 참학력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학교담당자와 참학력 지원단(컨설턴트)이 학습공동체로 성장하는 참학력 기반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을 위하여 생활과 공간의 컨설팅을 통해 참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 '학습공동체로 성장하는 참학력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학력 학교를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 구축을 위해 참학력 지원단을 조직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참학력 지원단

은 그간 월 1회 연간 30시간 이상의 연수와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 연구·실천을 하고 있고 참학력 학교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학습공동체 운영 및 교육과정-수업-평가 개선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참학력 지원단은 2015년 초 30명 중 고 30명 등 총 60명으로 출발해, 2016년 111명, 2017년 108명, 2018년 140명, 2019년 현재 초 75명 중 61명 고 65명 등 총 201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참학력 지원단은 올해 전라북도교육연구원과 연계하여 '미래교육 방향과 과제', '수업 알아차림을 통한 수업보기', '참학력의 '참'과 '학력'을 근원

적으로 묻기' 등을 주제로 매달 공동 연구하고 이를 각자의 학교에서 공동 실천함으로써 교사 개인의 역량 향상뿐 아니라 소속 학교 학습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공동체 리더로서의 역량도 쌓아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담당자와 참학력 지원단(컨설턴트)의 반성적 실행 중심 컨설팅을 통해 참학력 학교의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자리"라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참학력 학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에는 참학력 학교가 초등학교 41교, 중학교 36교, 고등학교 60교 등 총 137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짜릿한 역전승으로 최강 자리 올라

우석고, 전국 유도대회 남고부 단체전 우승

전주 우석고등학교(교장 김영관)가 2019 용인대총장기 전국 남녀 중·고 유도대회 남고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4일까지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펼쳐진 가운데, 우석고는 대회 마지막 날 남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 동지고를 4:0으로 완파했다.

앞서 지난 달 열렸던 순천만국가정원컵대회에서 경민고에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우석고는 이번 대회에서는 8강전에서 경민고를 맞아 4: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어 준결승전에서는 인천천체고를 4:1, 결승전에서 동지고를 4:0으로 누르면서 고등부 최강 자리에 올랐다.

특히 100kg 송우혁(우석고) 선수는 전 경기 한판승으로 우승하며 시즌 2관왕에 올라 남자 유도 중량급 기대주로 입지를 굳혔으며, 여고부 78kg 고가영(전북여고) 선

수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활약이 주목된다. 60kg 최낙일(우석고) 선수 또한 투지 넘치는 경기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전북중학교 선수들도 선전했다. 이번 대회 남중부 단체전에서 준우승, 남중 81kg 진정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51kg 최영민 선수와 여중 70kg 오지희 선수는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우석고등학교 하형덕 감독은 대회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훈산학원 윤여용 이사장은 "힘든 훈련과 갖은 부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학생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우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학교와 전북의 명예는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룰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수학동아리 지원... 16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이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인 학습동기 형성을 위해 학생수학동아리를 적극 지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총 100개의 학생수학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주제탐구, 활동중심 분야에서 각각

50개팀(초 10·중 20·고 20)을 선정해 1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또는 구성원 자체 경비로 활동해온 운영 실적이 있는 동아리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주제탐구 분야의 경우 다양한 수학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게 탐구·조사하는 활동을 하면 된다. 활동

내용은 오는 11월 열리는 전북학생탐구수학동아리 학술제를 통해 발표한다.

또 활동중심 분야는 수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역시 11월 학술제에서 활동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2일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5일 지도교사 협의회를 거쳐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동아리는 수학교사(지도교사)를 중

심으로 학생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방과후 또는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해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주도로 자율적인 운영을 하면 된다.

도교육청 수학담당 장학사는 "다양한 수학탐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열린 사고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학생과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